



#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이사아키오스 수사

## 부활 후 제5주일 / 사마리아 여인 주일

성 카르포, 성 알패오 사도

제4조, 조과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1, 2, 3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부활 입당송 '모두 다 모여' / 부활절 예식서 38
- 제4조 부활 찬양송 / 82, A 214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예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11, 19-30 / 254, 봉독서 64
- 복음경 : 요한 4, 5-42 / 100, B 20
- 성모송 / 부활절 예식서 26
- 영성체송 / 부활절 예식서 42
- '우리가 참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 성 이사아키오스 수사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사람들과 세상의 것들을 활용하십니다. “본 일이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1티모테오 6:16)라고 거룩한 바울로 사도가 말했듯이, 하느님의 본질을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호렙 산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시나이 산에서 천둥과 번개 사이에서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왔으며, 엘리야 예언자에게는 미세한 바람처럼 나타나셨고, 마침내 하느

님 말씀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느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도구로 선택된 사람과 사물을 통해서 하느님의 힘과 신성한 기운이 드러납니다. 이사아키오스 성인(4세기)이 바로 그런, 하느님의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교회에서는 5월 30일을 성인의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불경건한 왕비에게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인을 도구로 선택하여 활용하셨습니다.

## 우리들의 희망은 빼앗겼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 하신 후,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고, 매일 수많은 일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은 ‘결국 사라지고 만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희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인물 즉, 완전한 하느님이면서 인간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의 끝에서 끝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희망은 우리 하느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민을 갔는데, 그를 다시 만나고 싶어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십시오. 그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여행을 결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장거리 여행에서 그는 병이 들기도 하고 여러 고난과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의 마음 속의 희망이 잠깐이라도 사라진다면 모든 것이 어둠 속에 갇힐 것입니다. 절망은 그를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향유 가진 여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을 잃어 슬픔에 빠졌습니다. 교회의 성가 작사가는 “왜 우리에게

게서 희망을 빼앗아 갔습니까?”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희망을 찾았을 때 즉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빛으로, 기쁨으로,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신병, 자살, 우울증, 절망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물, 술, 음식, 물질적인 충족 등 잘못된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실망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희망의 닻’(부활 카논 9오디)이신 그리스도에 의지하면 기쁨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들의 희망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신앙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생각에 의심을 계속해서 강하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신론과 적그리스도 사상으로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 가고 우리를 죽은 생명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과 세상과 우리의 나쁜 마음이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가도록 방치해선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희망에 머문다면,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도 세상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삶의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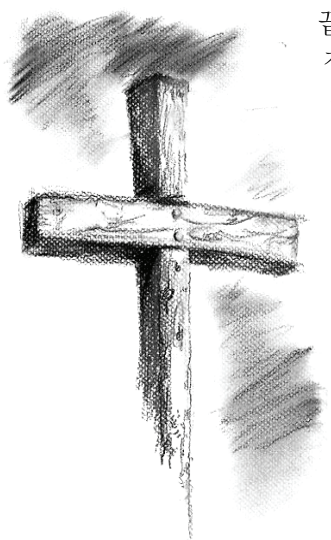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의 희망을 빼앗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복한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의 수많은 어린이가 배고픔에 죽

☞ 3면으로 계속

##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을 향해 간다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매 주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곁으로 모인다.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가 속한 분에게로 온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에 모인다. 곧, 하느님이 계시는 교회에 모인다. 만일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가 그분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돈에 속하거나, 운동 경기, 낚시, 사냥, 골프, 야구 또는 텔레비전, 인터넷 등등에 속한 것이다. 결국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하느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주일마다 성당에 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인정하는 것이다. 마치 하루가 끝나는 시간에 우리가 속한 곳, 바로 우리의 집이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날에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인 교회에 가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모여 전능하신 하느님을 예배하고, 마음과 무릎을 굽혀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 양과 염소의 분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이다. 곧, 사람들은 하느님이 계신 곳이나 아니면 하느님이 계시지 않은 곳, 또는 천국이나 지옥 어느 곳이든 자신들이 언제나 속했던 곳으로 이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소수의 특권층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과 사악한 목적으로 그들의 삶의 희망을 빼앗아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굶주린 어린이들을 위해 음식과 필요한 약을 전달하면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희망과 기쁨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희망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희망을 빼앗지 않도록 노력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합시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 소 식

### 대교구

#### ■ 성화 수업

하느님의 축복으로 올해도 5월 20일(월)에 소존 야누디스 교수의 지도로 비잔틴 성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오전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안토니오스 임종훈 사제의 기도를 시작으로 대주교께서는 올해도 다시 성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느님께, 또한 멀리 그리스에서 비잔틴 성화를 가르치기 위해 오신 소존 교수께, 그리고 신성한 영성 예술인 비잔틴 성화를 배우기 위해 열정과 정성을 가지고 모인 수강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소존 교수는 다시 한국에 와서 옛 제자들을 만나고, 새로운 제자들을 만난 기쁨을 표현하고, 비잔틴 성화의 예술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 대해 최선을 다해 가르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스 임종훈 사제는 다마스쿠스의 성요한의 ‘거룩한 이론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두 번째 반박’에서 한 부분과 제7차 세계공의회 성화에 대한 결정에 대한 한 부분을 소개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으로 성화 수업이 마지막까지 잘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 전주 시장 방문

정교회 한국대교구는 전주 성모 안식 성당의 새로운 건축과 관련하여 전주 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일라리온 정종혁 사제와 함께 성당의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 음식 축제 참여

지난 5월 18일(토)에 성북구 석관동에서 개최되었던 성북세계음식축제 ‘다다식탁’에 참여하였습니다. 로만 사제와 슬라브어 사용 교인들과 아타나시아 봉사자와 카를

라 교우가 음식을 준비하여 다양한 나라의 음식과 올리브유, 올리브 판매를 통해 성당의 재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준비해주시고 수고를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 부인회 수도권 방문

지난 5월 15일(수)에 안토니오스 임종훈 사제와 부인회 회원들이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을 방문하여 24인 한국정교회 수호 성인의 성유해에 경배드리고, 다함께 부활 찬양가를 부르고,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또한 아침고요 수목원과 양수리 환경생태공원도 방문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부활절 종례일 밤 예배

오는 6월 5일(수) 부활절 종례일을 맞이하여 작년처럼 부활절 종례일 밤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6월 4일(화) 오후 7시에 시작하여 9시 30분경에 마칠 예정으로, 예배는 부활절 밤 예배와 같은 예배로 특히,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있을 것입니다.

### 부산 성모 희보 성당

#### ■ 봄 야유회

오는 6월 6일(목) 현충일에 봄 야유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장소와 시간,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 울산 대공원

· 시간 : 10시 30분

· 모이는 곳 : 울산 대공원 남문 앞

· 준비물 : 각자 도시락과 음료수, 돗자리  
돌아가신 애국지사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를 지켜주신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